

각종 규제 불구 가계 대출 늘어나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빛 증가세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됐고 신용대출은 오히려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 5곳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5조5063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721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8·2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 증가액(2조4654억원)보다는 다소 꺾였지만, 전월 증가액(1조6442억원)보다는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 달새 증가폭은 6280억원

가량 커졌다.

지난 10월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로 주택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가,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474건으로 전월(381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올 최대폭 증가 기록을 다시 세웠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7조406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7809억원 늘어났다. 추석 연휴가 긴 10월 증가액(1조7729억원)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 5곳, 주택담보대출 2조2721억 증가 신용대출도 1조7800억 늘어...올 최대폭 상승

추석 연휴때 소비성 자금이 늘면서 카드값 결제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대출 규제에 막힌 일부 대출 수요에 따른 '동선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준에 실행된 집단대출 취급액까지 더해지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가계부채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집단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내년 1월 강화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줄고 주택시장

의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입주 분양에 대한 자금 수요와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취급분 대출 규제 본격화된 선수요 등에 따라 증가세가 단기간 내에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6년5개월 만에 전격 단행된 금리인상도 당장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금리인상을 살펴본 결과 금리인상 초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다가, 금리가 약 1%p 오른 시점부터 서서히 둔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요인이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된 시점에는 금리 수준이 낮아 부담이 크지 않다"며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으로 안정화 될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목포수협은 지난달 30일 85t의 참조기가 위판되는 등 지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500t이 위판돼 305억원의 위판고를 기록,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수협 위판장의 참조기 위판.

목포수협 위판장 황금빛 참조기로 가득

최근 2~3년간 부진했던 참조기 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어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조기떼가 추자도와 흑산도 해역에 머물면서 목포수협 위판장은 제철을 맞은 황금빛 참조기로 가득하다.

1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전날 목포수협 위판장에 85t의 참조기가 위판되는 등 지난 8월 중순부

특히 이날 위판한 29급 '103' 등급은 1항차(보름) 만에 3억 2000만원의 참조기를 위판해 최고 기록을 차지했다.

목포수협 위판장에서는 덕양호 외에도 최근 한 달여 동안 1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기록한 유자망 어선이 40여 척에 이르고 있다.

특별한 날 상에 오르던 참조기는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생선으로

지난 8월 이후 위판액 305억원... 지난해 220억원보다 38% 증가

덕양호 1항차에 위판액 3억2000만원 최고... 1억 이상 40여척 달해

터 현재까지 3500t이 위판돼 305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판실적 3400t, 위판액 22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위판액은 38% 증가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위판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올 들어 크게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가(漁價)가 지 좋아 위판액은 20~30%를 상회하는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추자도와 흑산도 인근에서 많이 잡힌다.

목포수협에 위판되는 참조기는 깊고 청정한 바다에서 자라 씨알이 굵고 조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목포 선창이 금빛 조기풍어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민선인 유자망 조기잡이배가 목포 앞바다를 채우며 선창의 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4등 Lotto 제 783회차 당첨결과 (2017년 12월 2일 추첨)

14 15 16 17 38 45 + 36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4	4,603,964,6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36	85,258,60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869	1,642,22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0,89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32,64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명입금

"아이폰X, 고평가... LG V30, 저평가"

최근 미국의 매체들이 주요 스마트폰을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LG V30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칼럼 또는 기사를 게재,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는 지난 11월27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벤 신(Ben Sin)이 작성한 '아이폰X가 과대평가 받는 만큼 LG V30이 과소평가되고 있다(The LG V30 Is As Underrated As The iPhone X Is Overrated)'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분석 결과 벤 신은 아이폰X 디자인에 대해 '후면에 보기 흉하게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다른 프리미엄 제품에서 사라진 형태인 반면 V30 카메라는 튀어나와 있지 않았으며 제품 전반이 슬림한 편이라고 봤다.

또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 아이폰X는 균형감 있고 질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V30의 경우에는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때 전문가 모드를 지원해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 전문매체인 폰아레나(Phone Arena)에서도 지난달 4일 '애플 아이폰X 대 LG V30 첫인상(Apple iPhone X vs LG V30: first look)'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서 폰아레나는 'V30의 방수방진 수준은 IP68로, IP67인 아이폰X보다 뛰어나다' '아이폰X와 다르게, 유용한 3.5mm 헤드폰 잭과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V30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의 평가를 했다.

폰아레나는 해당 기사에서 LG전자 V30에 탑재된 배터리의 견고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1~2인 가구시대, 크리스마스용품 트리 대신 인테리어 소품이 '대세'

이마트가 12월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베이직 침엽 트리 3종(120cm/150cm/180cm)을 각 3만 9900원, 5만1990원, 7만1990원에 준비했으며, LED 전구류를 9900원~2만7900원대, 스노우볼, 오르골을 1만5990원~1만790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나 트리장식 등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용품을 물량을 줄이는 대신 크리스마스 인테리어용 소품을 크게 늘려 준비하였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인 가구와 같은 소형 가구가 늘어나면서,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어, 전통적으로 '트리'를 꾸미는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테이블용 트리나 가랜드, 전구 등 소품을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성향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

다.

트리의 경우 꾸미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보관이 어려운 반면, 소품으로 자유롭게 집을 꾸미는 것이 실속 있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의 매출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15년도에는 트리와 트리용 장식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34%로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전구류의 매출 비중은 2015년 21%에서 2016년 31.5%로 대폭 늘어났다.

전구의 경우 작년보다 SNS 등을 통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월 트리(wall tree)'를 만들거나 크리스마스가 아닐 때도 파티 분위기를 내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올해에도 LED 장식품이나 길란드 위주로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꽃으로 알려진 포인세티아 화분도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